

2023학년도 2·3·5·6학년 학생 소변검사 실시 안내

학생들의 신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2023학년도 2·3·5·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변검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오니 검사 전 주의사항을 읽어 보시고 검사 당일 해당 학생들이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1. 검사 일시: 2023. 5. 24.(수) 09:45 ~
2. 검사 대상: 2·3·5·6학년 학생
3. 검사 비용: 무료 (검사료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함)
4. 검사 기관 : 한국학교보건협회 전북지부에서 학교 방문 검사함.
(검사 스틱에 중간 소변을 묻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.)
5. 검사 항목 : 요단백, 요당, 요잠혈, PH(요산도)

♣ 검사 전 유의사항

- * 검사 전날에는 지나치게 많은 과일, 채소 등 비타민 C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, 검사 당일 아침식사는 할 수 있으며, 당분이 있는 음료수나 과자는 먹지 않도록 합니다.
- * 검사 전날 지나치게 심한 운동이나 과로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.
(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)

♣ 소변검사 시 주의사항




- * 소변은 처음과 마지막 소변이 아닌 중간에 나오는 소변을 받습니다.
- * 우리 학교 검진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♣ 검사 결과 안내

- *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정에 알려드립니다.
- * 이상소견이 있는 학생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. 5. 15.
팔 덕 초 등 학 교 장

소변검사의 중요성

	<p><u>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힘듭니다.</u></p> <p>만성신장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뇨검사가 필수입니다. 신장은 노폐물 제거, 적혈구 생산의 조절과 골형성, 혈압은 물론 전해질 및 수분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.</p>
	<p><u>자각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.</u></p> <p>만성신장염은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신쇠약, 빈혈, 다뇨증 등의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전문의를 찾을 때는 신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약물 요법이나 식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투석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</p>
	<p><u>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/u></p> <p>만성신부전은 투석이나 이식 같은 치료 외에 약물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요법, 식이요법 및 기타 보조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.</p>

♣ 소변검사 항목

- 1) 요단백: 신장질환을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법입니다.
- 2) 잠 혈: 혈뇨는 전신성의 출혈경향, 신장 종양, 비뇨기계의 종양, 염증, 이물 등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.
- 3) 요 당: 소아 당뇨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
- 4) 빌리루빈, 유로빌리루빈: 간기능 장애나 용혈성 빈혈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.

2023. 5. 15.

팔 덕 초 등 학 교 장